

잊지 못할 보랏빛 추억, 작천 코끼리마늘꽃 3 Days

20일부터 22일까지 3일 동안... 볼거리와 먹을거리 한가득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열리는 '제2회 작천 코끼리마늘꽃 3 Days' 행사로 강진군 작천면 부흥마을이 보랏빛 꽃물결로 물든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코끼리마늘꽃이 활짝 핀 부흥마을 일대를 배경 삼아, 다채로운 꽃들이 가득한 꽃단지 정원과 함께 자연의 아름다움과 농촌만의 따뜻한 정서를 가득 담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관람객을 맞이한다.

약 4ha 규모의 재배단지에는 코끼리마늘꽃뿐 아니라 매밀, 벼들마편초, 장미 등이 어우러져 장관을 이룬다. 꽃밭 곳곳에는 포토존과 쉼터가 마련돼 있어, 방문객들은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여유를 즐기며 인생샷을 남길 수 있다.

행사장 중심에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체험 판매 부스와 음식 부스가 자리잡는다. 판매 부스에서는 부흥마을에

서 생산한 쌀, 감자, 고사리, 오디, 옥수수 등 다양한 농산물들을 만나볼 수 있다. 음식 부스에서는 닭개장과 콩국수, 오리날개 튀김, 홍어삼합 등 향토 먹거리도 맛볼 수 있다.

즐길 거리도 풍성하다. 현장에서 찍은 사진을 무료로 인화해 주는 서비스부터, 족욕 체험(1인당 1만원), 감자 캐기 체험(1인당 5,000원) 등 가족 단위 방문객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들이 가득하다.

이밖에 하멜존커피 부스에서는 SNS에 인증사진을 올릴 경우 물렛 추첨을 통해 선물을 증정하는 이벤트가 진행된다. 행사장 배정으로 찍은 사진을 스토리에 올리고 부스에서 인증하면 현장 경품을 받을 수 있는 SNS 인증 이벤트와 SNS 스토리 업로드 이벤트 등 SNS 홍보를 통한 이벤트들도 다양하게 준비돼 있다.

더불어 행사장 일대에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들이 가득하다. 행사장의 멀리 않은 곳에 있는 작천면 까치내 공원은 강진군 농업기술센터가 조성했다. 사스타데이, 나비마늘꽃, 벼들마편초 등 수많은 이국적인 꽃들과 다양한 포토존, 휴식 공간들이 있다.

또한 행사장에서 차로 5분 거리인 병영시장에서 개최되는 불금불과 행사도 빼놓을 수 없다. 병영의 대표 특산물인 병영 돼지불고기와 함께 EDM 파티가 펼쳐지는 불금불과 행사는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개최되며, 도시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색다른 즐거움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곳이다.

이번 행사는 강진군과 작천면 부흥마을 주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 준비한 주민주도형 행사다. 단순한 꽃 구경을 넘어 지역의 먹거리와 특산물, 체험을 모두 아우르



는 특별한 행사다.

강진군 강진군수는 "코끼리마늘꽃을 통해 작천을 비롯해 강진군의 수많은 명소와 특산물들을 전국에 알리고 싶다"며 "관광객들이 강진의 자연과 정서를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만끽하고 가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진/손경설 기자



정인화 광양시장, 현장서 해법 모색

백계산 천년동백정원 조성사업장 등 3개소 방문

정인화 광양시장이 6월 중 제1차 '현장 소통의 날' 일정으로, 주요 사업장을 직접 찾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시민 불편 해소 방안을 모색했다.

지난 9일 정 시장은 ▲신원둔치 제방도로 및 주차장 진출입로 확포장 검토 현장 ▲백계산 천년동백정원 조성사업장 ▲글로벌대학30 순천대 첨단소재 광양캠퍼스 건립 부지를 차례로 방문했다.

첫 번째로 방문한 신원둔치 제방도로 및 주차장 진출입로 확·포장 검토현장은 '섬진강 준설토 판매 수익금 재투자사업' 대상으로,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신원둔치 암거로 2차로 확장공사 ▲제방도로 재포장공사 ▲내부도로 신규 포장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 시장은 병목 구간으로 차량 교통에 불편이 발생하는 신원둔치 암거

교 현장을 찾아 도로 폭 확장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차량 교통 편의성 및 자전거도로·인도 분리 설치 필요성을 점검했다.

광양시는 올해 안으로 실시설계 용역과 하천정용 허가 등 사전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사업 완료 시 도로 폭 확장을 통해 신원둔치 암거교의 병목 현상이 해소되고, 노후 제방도로 및 둔치 내 비포장도로 포장을 통해 도로 이용자의 안전성과 주행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로 방문한 곳은 백계산 천년동백정원 조성사업장으로, 옥룡면 추산리 311번지 일원에 도선국사의 풍수지리 사상을 반영한 자연친화적 주제정원을 조성하는 것이 해당 사업의 핵심이다.

광양/신선호 기자

순천시, 신규 IP 제작 지원으로 글로벌 문화산업 메카 조성 본격화

이전기업 및 지역기업이 시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발판 마련 기대

순천시(시장 노관규)가 신규 IP를 활용한 문화콘텐츠의 초기 창·제작비를 지원하는 '순천 IP 창·제작 지원 사업'의 참가기업을 오는 1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콘텐츠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애니메이션 및 웹툰 분야의 창·제작 초기 단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콘텐츠 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 및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모집대상은 20인 이하 관내 중소 콘텐츠

즈 기업이며 관내 입주예정 기업과 개인사업자도 신청 가능하다. 지원규모는 애니메이션 최대 1억 1천만 원, 웹툰 5천만 원으로 총 8억 1천만 원을 지원한다.

1차 기획안 평가를 통해 애니메이션 10개 과제, 웹툰 15개 과제를 선정하여 각 3천만 원, 1천만 원을 지원하며, 2차 최종결과물 평가를 통해 애니메이션, 웹툰 분야별 3개 우수작품을 최종 선정하여 각 8천만 원, 4천만 원을 시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기업이 가장 원하는 핵심 인센티브 요소는 바로 파일럿 제작을 위

한 시드머니 지원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콘텐츠 기업들이 순천에서 자생력 있는 IP를 개발하고, 더 넓은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진입로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순천 IP 창·제작 지원 사업'은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순천시와 (재)순천문화재단이 공동 추진하며, 자세한 내용은 순천문화재단 누리집 또는 e나라도움 공모사업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순천/정성인 기자



구례군, '우리집 식탁에서 만나는 바다' 영양교육

관내 등록급식시설 어린이 대상 수산물 인식개선 교육 지원

구례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센터장 박인덕)는 5월 19일부터 6월 5일까지 관내 등록급식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산물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수산물', '우리집 식탁에서 만나는 바다'라는 주제로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관내 등록급식소 관계자는 "교구와 연

령별 활동지를 통한 맞춤형 교육으로 어린이들이 수산물과 친숙해질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다.

박인덕 센터장은 "이번 영양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의 수산물과 수산물을 활용한 음식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다양한 식단을 골고루 섭취하여 면역력을 키우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구례/한정호 기자



광전매일신문 기사제보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곡성군, 논콩 이모작 재배 신기술 시범사업 추진

식량자급률 제고 위한 무굴작 왕겨충진형 배수시설 시공 눈길

곡성군(군수 조상래)이 관내 시범사업 현장에서 논 무굴작 왕겨충진형 배수시설의 시공 과정을 농업인들에게 시연하고 기술 설명회를 개최해 큰 관심을 모았다고 9일 전했다.

이번 시연은 쌀의 과잉 생산에 따른 가격 하락과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논을 활용한 타작물 재배를 통해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한 '논콩 이모작 재배 신기술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해당 사업은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의 도비 지원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며, 곡성군에서는 총 26ha 면적에서 논콩 재배가 이뤄지고 있다. 그중 주요 기술인 '무굴작 왕겨충진형 배수시설'은 논에 배수 문제를 해결하고, 콩 생육에 적합한 재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무굴작 왕겨충진형 배수시설'은 트

랙터를 이용해 논의 심토를 파쇄하지 않고, 그 틈에 왕겨를 채워 배수층을 형성하는 방식이다. 기존 굴착기를 이용하는 방식보다 시공이 간편하고 비용이 절감되는 장점이 있다. 또한 토양의 배수성을 높여 습해를 줄일 수 있으며, 농가에서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어 향후 논에서도 밭작물 재배가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올해 안에 시범사업을 완료한 뒤 작황과 수익성 등을 분석해 효과가 입증되면 관내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논콩 이모작 시범사업이 농업인들에게 새로운 소득 모델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 향후 인근 지역으로의 확산도 염두에 두고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곡성/이정수 기자

